농어가 침수·낙과 피해 ‘비상’

‘산산’ 100㎜ 큰 비에 초속 45m 강풍

선박 2만5,000여척 대피·항공기 결항

전남지역이 북상중인 제13호 태풍 ‘산산’(SHANSHAN)의 영향권에 들면서 본격 수확철을 앞둔 도내 벼 재배 및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에 강타당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불어닥쳐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제13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17일 오후 전남지역은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상청은 18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20~60㎜, 많은 곳은 10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남 남해안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며,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확철을 앞둔 도내 농가들은 태풍 피해를 우려하며, 태풍 ‘산산’의 진로와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주시 금천지역 1만 평 가량의 과수원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최모(44)씨는 “이번 주 중반부터는 수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때 태풍이 불어닥치니 한숨만 나온다”며 “낙과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해놓긴 했지만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태풍과 관련, 17일 김영록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실·국장회의를 갖고,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목포항·여수항·완도항을 기점으로 하는 48개 항로 67척의 여객선 운항을 전면 통제하고, 선박 2만5천여 척을 긴급 대피시켰다.

전남도는 또 ▲산사태 위험지구 9곳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준설 ▲제방 유실에 대비한 비닐막 씌우기 등의 작업을 긴급 실시토록 했다.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여수~김포, 여수~제주 등 10편 ▲목포~김포 1편 등 국내선·국제선 항공기 85편이 결항됐으며, 지리산·월출산 등 산과 계곡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17일 남해 전 해상에 3~4m 높이의 파도가 이는 등 태풍경보가 내려지면서 조업 중이던 선박들이 여수 국동항에 대피해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태풍 ‘산산’의 특징

비보다 바람 위협적

태풍 ‘산산’은 비보다 바람이 강한 게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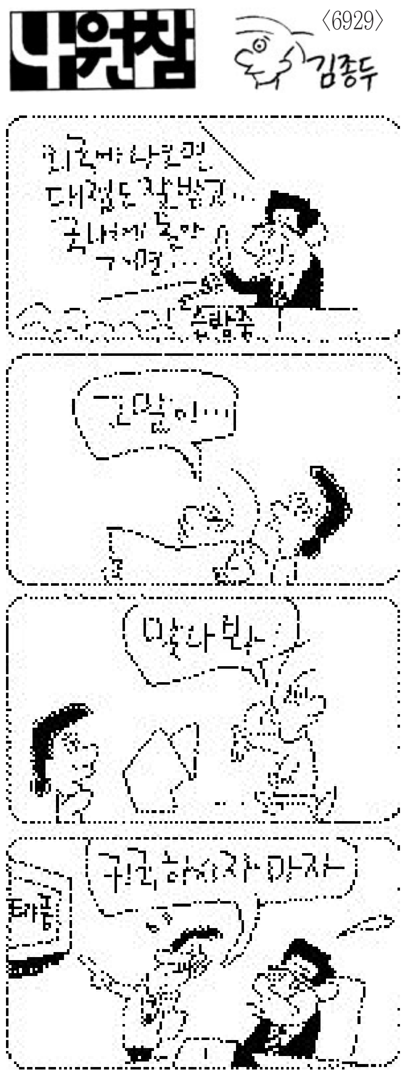
중심기압은 940헥토파스칼(hPa)·최대풍속 초속 45m(시속 162km)이며, 한때 초속 49m까지 불고 있다. 강풍주의보는 평균 풍속이 초속 14m(순간풍속 20m/sec), 강풍경보는 21m(〃 26m/sec)일 때 발효된다.

‘산산’이 강풍을 동반한 이유는 북상하면서도 중심기압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 주변과 기압차가 커 소용돌이성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또 태풍 경로에 있는 해수면 온도가 28~29도로 높아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어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강풍이 계속 불 경우 교량 등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광주 극락대교는 순간 최대풍속 30m까지 견딜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斜張橋)인 진도대교의 내풍(耐風) 한계는 34m. 1905년 영국 해군제독 보퍼트(Beaufort)가 만든 풍력계급에 따르면 초속 28.5~32.6m면 건물이 부서지고 차가 넘어진다.

여객기의 경우 기종과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배풍(背風·tail-wind) 시속 10노트(18.5㎞) ▲옆바람(cross-wind) 25~30노트(46.3~55.5㎞) 초과시 이·착륙이 금지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태풍에 밀려온 ‘고래상어’

해운대 백사장에 표류 숨져

17일 새벽 4시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희귀종인 고래상어 1마리〈사진〉가 파도에 밀려와 표류했다.

고래상어는 길이 4m·너비 1m·무게 1t 가량의 크기로 몸속에서 갓 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가락 크기의 새끼 몇 마리와 함께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은 대형 수족관인 부산아쿠아리움 직원들과 함께 상어를 바다 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구조를 시도했지만 상어는 제대로 헤엄치지 못하고 다시 바닷가로 밀려와 숨졌다.

해경은 고래상어가 태풍으로 인한 높은 너울성 파도에 해안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래상어= 온대와 열대지방의 먼바다에 살며 가끔 연안에도 나타나는 희귀종. 몸길이가 최대 18m까지 자라는 지구상의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지만 성질은 매우 온순한 난태생(卵胎生 : 몸속에서 수정란을 부화시킴) 어류다.

공무원 시험 준비 30대 수차례 낙방 비관 자살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남성이 잇따라 시험에 불합격한 것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7일 오후 1시30분께 임모(35·광주시 남구 월산동)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동생(여·3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광주 J대 공대를 졸업한 뒤 공무원 취업을 준비해 왔으나, 시험 볼 때마다 낙방하자 심각한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임씨가) 직업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송광운 북구청장 처조카 비서 특채

광주시 국장·전남도 부지사 때도 친인척 특채 의혹

광주시 북구청이 송광운 구청장의 처조카를 비서실 기능직원으로 채용해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송청장이 광주시청 국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또 다른 조카 2명이 각각 광주시 관련 기업과 전남도청 직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북구청은 최근 송광운 북구청장의 처조카인 박모(여·32)씨를 구청장의 비서(지방사무원 기능 10급)로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 8월 16일 인터넷에 기능직 10급(비서실 요원) 제한경쟁 특별임용공고를 낸 뒤, 지원자 56명 중 50명을 면접해 이 가운데 점수가 가장 높은 박씨를 지난 14일 채용했다는 것이다. 면접위원은 북구청 이영률 총무국장과 광주 모 대학 교수 등 2명이었다.

선거직 구청장은 별정 6급과 7급, 기능직 1명 등 모두 3명의 인력을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이에 대해 송청장이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모(57·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는 이날 ‘광주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2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있는 아들이 이런 소식을 들을까 무섭다”며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처조카를 비서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영률 북구청 총무국장은 “채용 심사를 할 당시에는 (구청장의) 처조카가 지원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채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국군의 날을 9월17일로 바꾸자”

쌍나팔

○…광주의 한 재향군인회 모임이 ‘국군의 날’을 9월17일로 바꾸자고 주장해 눈길.

○…‘(가칭)평화재향군인회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임동규 등 2인)는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17일은 상해 임시정부가 국군의 효시인 광복군을 창설한 날”이라며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설립된 광복군이야말로 진정한 국군의 정통성을 가졌으므로, 이날을 국군의 날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또 “10월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날이며, 민족상잔과 식민사대사상에 뿌리를 둔 치욕의 날”이라고 역설. /임주형기자 jhlim@